일본 식품산업의 코로나19 영향과 전망

이 용 건 *

1. 들어가며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0월 1일 기준 전 세계에 3,382만 명의 양성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01만 명이 사망하였다. 코로나 발생 원인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코로나를 「전쟁」과 같이 인식하는 견해가 증가하는 등 세계 각 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는 2020년 10월 1일 기준 8만 3,563명이며, 최근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학교 임시휴교, 외출 제한 등을 실시하였다. 게다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수출부진, 외식 수요 감소, 노동력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농업 및 식품산업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던 저출산 고령화·인구감소, 농촌지역사회 유지의 어려움, 가축질병 발생이나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식품산업·농업에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을 1차와 2차에 걸쳐 보정하여 발표하였다. 2020년 1차 보정예산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수요 감소와 외국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차 보정예산은 농업경영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 전망과 식품산업·농업에 관련된 소비, 외식, 유통, 가격, 수입, 생산 현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With 코로나 시대'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전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yglee@krei.re.kr)
본고는 일본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4월~5월 긴급사태 선포 시기를 주된 대상으로 검토함.

2. 일본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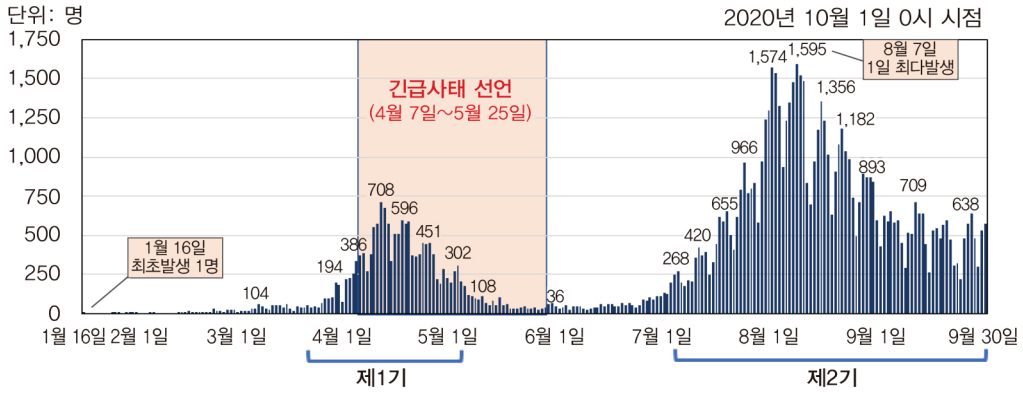
일본은 2020년 1월 16일 1명의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발생한 후 2020년 3월 27일에는 1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4월 초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긴급사태를 선언하였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긴급사태는 최초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로 선언되었으나, 5월 4일에 긴급사태를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5월 15일부터 코로나 1일 발생이 50명 전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5월 25일에 긴급사태 해제를 선언하였다.

5월 말부터 7월 초에는 1일 코로나 양성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를 유지했으나, 7월부터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8월 7일에는 1일 확진자가 1,595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10월 현재까지도 1일 500명 전후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 발생은 두 차례에 걸쳐 급증했으며, 기간별로 1기와 2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기는 3월 말부터 5월 초로 이때의 1일 최대 확진자는 708명까지 증가하였다. 2기는 6월 말부터 현재까지이며, 1일 확진자가 최대 1,595명까지 증가한 뒤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10월 현재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2020년 10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는 8만 3,563명, 사망자는 1,57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10월에도 1일 272명~6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1)]

〈그림 1〉 일본의 일일 코로나 양성 확진자 발생 현황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2020년 10월 1일 0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검사(PCR) 인원은 총 211만으로 코로나 확진자 8만 3,563명 중 일본 국내 발생은 8만 2,597명이며, 해외유입은 966명임(일본 후생노동성).

〈그림 2〉는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가 일본 총무성, 일본은행 등의 자료를 이용해 예측한 일본경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2020년 GDP는 전년 대비 ▲6.5%로 마이너스 성장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1년에는 회복되나 전년 대비 +2.7% 성장으로 일본의 GDP 회복은 느릴 것으로 기대된다.[2] 일본의 2020년 3분기 GDP는 일부 국가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2분기 대비 성장해 1년 만에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나,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0년 하반기에도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 발생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경제활동 수준의 회복 속도는 느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의료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다시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21년에는 세계 각국에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연기되었던 도쿄올림픽의 개최로 여름철에는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며, 올림픽 종료 후에는 성장세는 유지하나 성장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GDP의 과거 정점(2019년 3분기)으로의 회복은 빨라도 2024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3]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대규모 재정정책을 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감염 확대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수요 감소로 디플레이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 ▲0.5%(소비세 인상 요인을 제외하면 ▲1.0%)로 4년 만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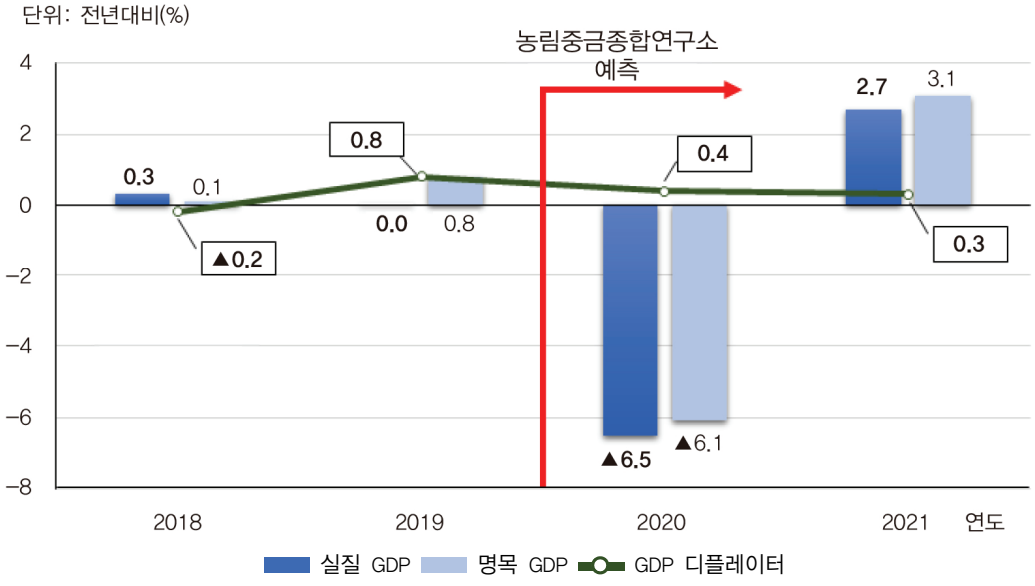
4월에 발생한 기업 도산은 전국에 743건(전년 대비 15.1% 증가)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에서 코로나19 발생과 관련된 기업의 도산은 71건으로 집계되었다. 도쿄상공리서치에 의하면 2020년 4월의 부채총계는 1,450억 엔(전년 대비 35.6% 증가)으로 8개월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2)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가 2020년 6월에 공표한 일본 GDP 전망은 2020년 가을에는 코로나 발생이 수습될 것을 전제로 하여 2020년 ▲5.0%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공표하였음. 그러나 2020년 하반기에도 코로나 발생이 지속되면서 8월 공표에서 2020년 ▲6.5%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공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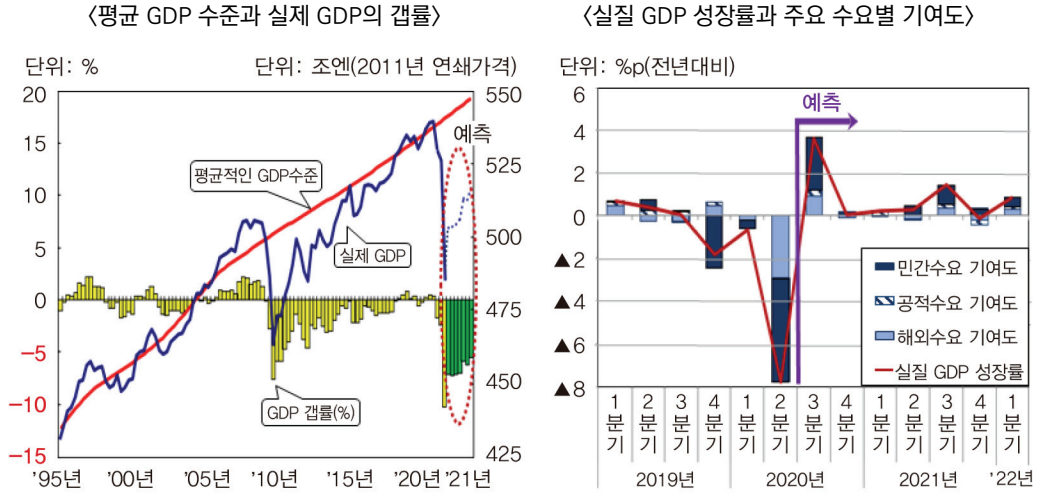
3)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의 6월 공표에서는 2022년 이후로 전망하였으나 8월 공표에서는 2024년으로 개정하여 공표함.

〈그림 2〉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전년 대비)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8.『2020~21년도 개정 경제 전망』.

〈그림 3〉 일본의 GDP 갭률과 주요 수요별 기여도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8.『2020~21년도 개정 경제전망』.

3. 코로나19 발생이 식품산업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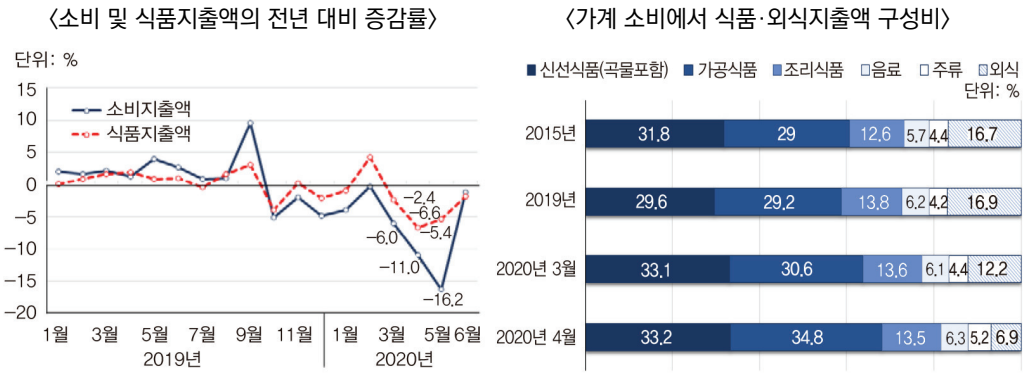
3.1. 식품소비

3.1.1. 코로나19 발생이 식품소비에 미친 영향

일본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2020년 1월 19일 이전)의 가계 소비지출은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가 인상[4]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식품 소비지출도 같은 추이를 보였다. 일본에서는 2020년 4월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5]하면서 가계 소비지출액 및 식품지출액이 많이 감소하였다. 2020년 4월 소비지출액은 전년 대비 ▲16.2% 감소했으며, 5월에도 전년 대비 ▲16.2% 감소하였고, 식품지출액도 4월은 전년 대비 ▲6.6% 감소, 5월은 전년 대비 ▲5.4% 감소하였다.

일본의 식품지출액 구성비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신선식품(곡류 포함)의 구성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반찬 등 조리식품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외식에 대한 지출액 비중이 많이 감소하였다.

〈그림 4〉 소비 및 식품지출 현황



자료: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보고 – 각 월보』를 이용해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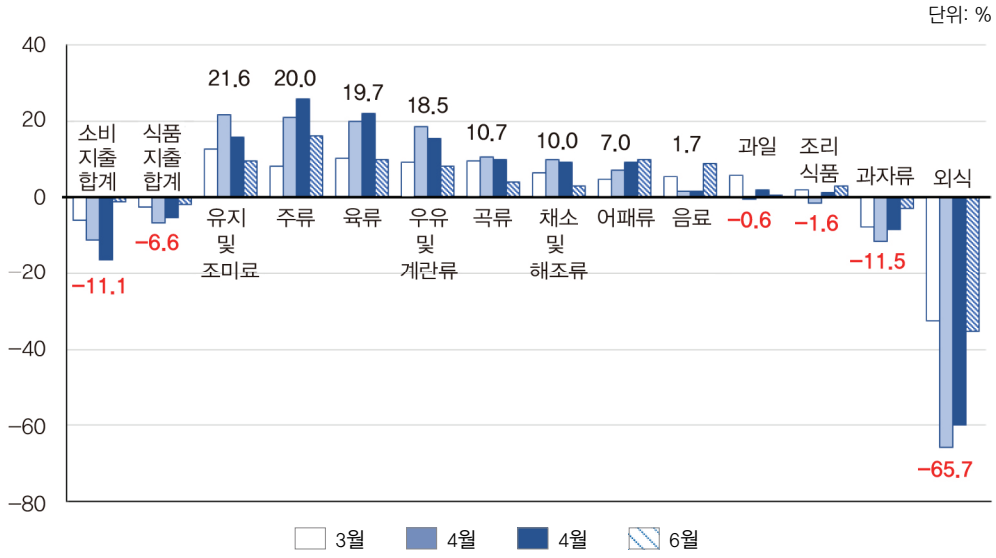
4) 일본의 소비세는 2019년 10월 1일부터 8%에서 10%로 인상됨. 다만,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경감세율 8%가 적용되는데, 특정 품목은 '주류 및 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 '신문'임. 외식의 경우 식당에서 취식할 경우 소비세 10%를 적용하며, 포장 및 배달할 경우에는 경감세율 8%가 적용됨.

5)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2020년 3월 26일 이전까지는 1일 100명 이하를 유지했으나, 3월 27일에 처음으로 1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4월 10일에는 1일 확진자가 708명으로 2020년 상반기 중 최대를 기록함. 2020년 10월 1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최대는 8월 7일로 1일 1,595명이 확진자로 판정됨.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식품에 대한 지출 중에서 유지·조미료, 주류, 육류, 곡류, 우유·계란류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였으나, 과자류와 외식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외식에 대한 지출액이 많이 감소하면서 전체 식품에 대한 지출액도 감소하였다. 2020년 4월의 유지 및 조미료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21.6%, 주류는 20.0%, 육류는 19.7% 등으로 지출액이 증가했으나 외식비 지출은 전년 대비 ▲65.7%로 대폭 감소하여 식품지출액 합계는 전년 대비 ▲6.6% 감소하였다.

언론매체 등에 따르면 2020년 2월 말 초등학교 등의 휴교 요청 직후 보존성이 높은 식품(쌀, 파스타, 면, 냉동식품 등)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3월 중순에는 도쿄도 등에서 외출 자제 요청이 있었으며 4월 초에는 긴급사태 선포 이후 가정에서 조리할 기회가 늘면서 신선식품, 보존성이 높은 식품, 조리가 간편한 손질 채소 등의 수요가 높아졌다. 또한, 식재료와 조리법이 세트로 구성되어 택배로 배송되는 밀키트(meal kit)[6]의 이용도 증가하였다. 가정 내 조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량 구매, 택배 이용이 증가했으며, 요리 간편성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다.

〈그림 5〉 2020년 월별 식품 종류별 지출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



주: 그림 안의 숫자는 2020년 4월 수치임.
자료: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보고 – 각 월보』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6) 밀키트(meal kit)는 식사(meal) 키트(kit)라는 뜻으로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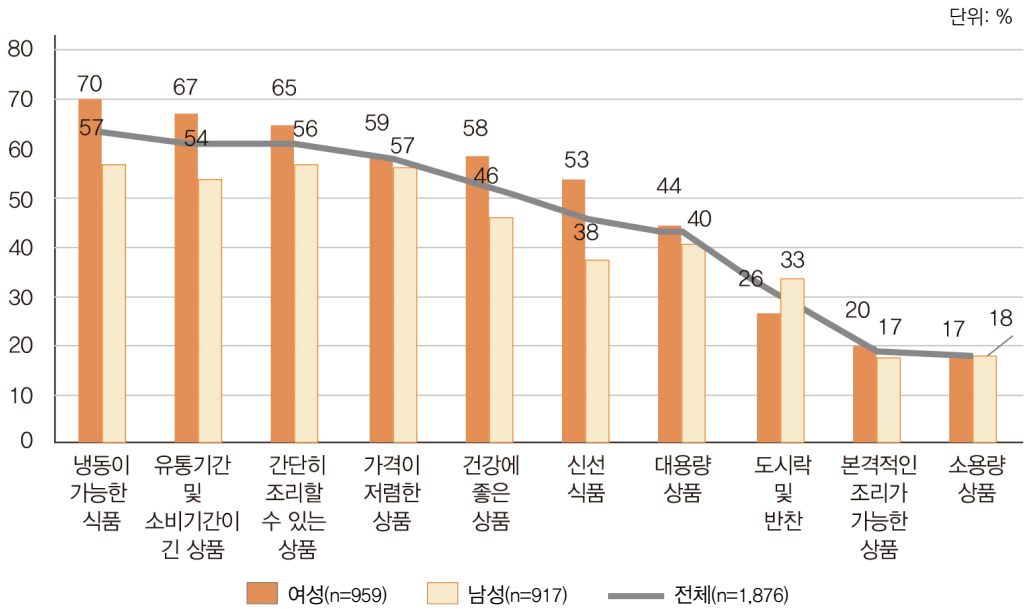
3.1.2. 'With 코로나(2020년 6월부터) 시대'의 식품소비

〈그림 6〉은 「일본 유통경제연구회」에서 2020년 4월 22일에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구매를 늘리고 싶은 상품의 특성과 종류에 관해 웹사이트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냉동이 가능한 상품'과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이 긴 상품',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상품'의 구매를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귀 현상이나 사재기에 대한 우려와 외출 자제로 상품 구매 빈도가 줄어든 것을 배경으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상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조사 결과 「대용량의 상품」과 「도시락·반찬」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구매 의향이 높으며, 「소용량의 상품」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새로운 생활양식"하에서 당분간은 가정 내 조리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보존성이 높고 조리가 간편한 상품 및 농산물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밀키트(meal kit)의 활용은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 코로나19 발생으로 구매를 늘리고 싶은 상품의 특성·종류



자료: 일본 유통경제연구회. 2020. 5.『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중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또한, 경기침체로 소비자는 절약지향이 강해지지만 식재료 선정, 조리방법 습득 등을 통해 가정 내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주목한 새로운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사례로 온라인으로 농축산물·식재료를 판매하고 있는 JA요코하마(요코하마 농업협동조합)와 일본 최대 요리 레시피 사이트인 쿡패드(クックパッド)가 있다. 신선택배 오이식스·라·다이치(オイシックス·ラ·大地)는 유명 요리사가 함께 제작한 밀키트를 판매하면서 온라인으로 요리교실을 제공하고 있다. 야키니쿠점(카쿠노신, 格之進)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칸자키(門崎)는 국산 쇠고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온라인 미팅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가자에게 고기를 맛있게 굽는 비결 등을 지도하는 온라인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그림 7〉.

〈그림 7〉 카쿠노신(格之進)의 온라인 강습회

자료: 카쿠노신(格之進) 홈페이지(https://kakunosh.in/).

3.2. 농산물 가격

3.2.1. 코로나19 발생이 과일 및 채소가격에 미친 영향

2020년 4월 도매시장 가격(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을 평년(같은 달의 과거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채소는 주로 외식에 이용되는 품목의 가격 하락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반면 가정에서 이용 빈도가 높고 조리가 간편한 품목(배추, 피망, 양배추, 버섯류)의 가격은 상승하였다.

과일은 외식이나 선물용 수요가 높은 품목(멜론, 포도)의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가정에서의 이용 빈도가 높고 보존성이 좋은 감귤, 사과 등의 가격은 상승하였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주로 외식소비용으로 이용되는 농산물은 가격이 하락하고 가정소비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농산물은 가격이 상승하였다.

〈표 1〉 과거 5년 평균과 비교해 2020년 4월 도매가격의 변동 폭이 큰 품목

단위: %

채소				과일			
하락폭이 큰 상위 20품목		상승폭이 큰 상위 20품목		하락폭이 큰 상위 20품목		상승폭이 큰 상위 20품목	
방풍나물	-81	배추	96	멜론(아스스)	-35	밤	104
파드득나물	-77	팽이버섯	92	멜론(아무스)	-32	사과(홍옥)	43
백합뿌리(ゆりね)	-74	시메지버섯	47	멜론(프린스)	-21	사과(부사)	37
꽃상추	-60	피망	39	포도(피오네)	-17	사과(세카이이치)	30
두릅나무	-54	양상추(그린볼)	35	멜론(퀸시)	-16	천혜향	28
적양파	-51	오쿠라	33	수박	-16	사과(조나골드)	23
적양배추	-51	잎새버섯	32	레몬	-13	사과(王林)	21
와사비	-51	토란뿌리	31	망고	-12	딸기(오마오우)	16
오이(모로)	-50	새송이버섯	30	감귤(이요칸)	-12	오렌지(하사쿠)	15
영귤(스다치)	-49	부추	30	오렌지(네이블)	-11	데코퐁(不知火)	14
양파	-47	양배추	28	블루베리	-10	하우스밀감	12
메루이(め類)	-44	소송채	25	멜론(홈런)	-10	딸기(베니훗패)	10
시소(오오바)	-40	연근	23	수박(こだま)	-10	딸기(치카호노카)	10
감자(男爵)	-37	청대콩	22	감귤(河内晩柑)	-9	딸기(도치오토메)	10
허브	-37	무순	20	멜론(貴味)	-8	멜론(하네듀)	10
유자	-37	고추	18	무화과	-6	보통귤	9
고사리	-36	나도팽나무버섯	16	아보카도	-4	감귤(清見)	9
양배추	-35	청경채	16	멜론(안데스)	-4	바나나	7
머위나물	-35	쑥갓	15	멜론(킨쇼)	-3	파인애플	5
동아(冬瓜)	-35	브로콜리	15	오렌지(발렌시아)	-3	키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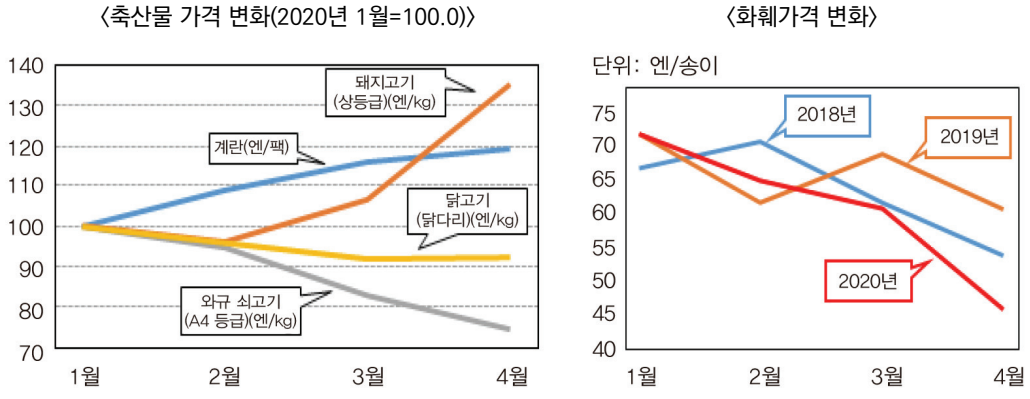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 6(원자료: 도쿄도 도매시장 홈페이지).

3.2.2. 코로나 19 발생이 축산물 및 화훼가격에 미친 영향

〈그림 8〉에서 2020년 1월 이후의 축산물 가격변화는 계란과 돼지고기는 가정 내 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했으나, 닭고기(닭다리)는 외식수요(닭꼬치 등)의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축산물 중에서는 와규 쇠고기의 가격 하락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식, 결혼식 등의 행사 자제로 화훼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020년 4월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85개 품목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3개 품목(튤립, 유채꽃, 나무쑥갓)으로 그 외 품목은 하락 폭이 컸다. 거래 수량도 평년 대비 26% 감소해 생산 현장에서 폐기 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8〉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축산물 및 화훼가격 변화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 6(원자료: 도쿄도 도매시장 홈페이지).

3.3. 외식·포장배달[7] 산업

3.3.1. 코로나19 발생이 외식 · 간편식 산업에 미친 영향

일본에서는 2020년 3월 상순부터 외식 및 포장배달업체의 예약 취소가 증가했으며, 일본 방문 관광객 수요나 환송영회 등의 연회 수요도 감소하였다. 「일본 푸드서비스협회」 조사 결과 2020년 3월 외식업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83%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4월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 수준으로 더 많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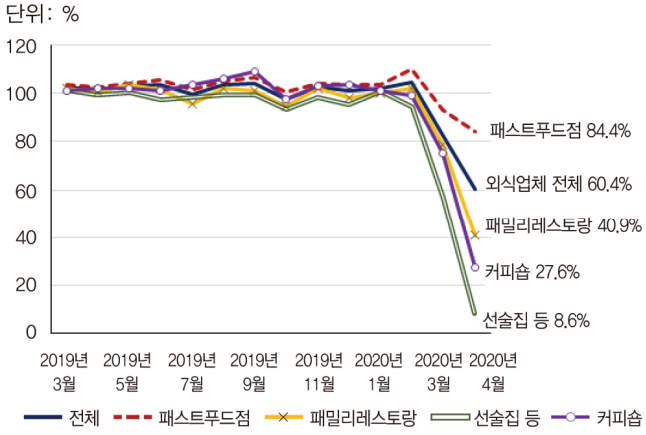
〈그림 9〉의 외식 업태별 2020년 4월 매출액은 패스트푸드점이 전년 대비 8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다른 업태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적었다. 패스트푸드점 중에서 드라이브스루 완비점이나 스마트폰 주문, 무현금 결제가 가능한 지점은 감염위험성이 낮으며 업소 내에서의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한편, 선술집 등은 패스트푸드점에 비해 매출액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술집 매출액은 2020년 4월 전년 대비 8.6% 수준으로 많이 감소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방문포장이나 배달 외에는 휴업을 실시하고 종업원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의 자택 대기를 실시하였다. 시간을 단축하여 영업하는 업소는 소독·환기·좌석 간격 확보와 종업원의 체온검사·마스크 착용 등 실시를 전제로 운영하였다.

7) 원자료 표기는 「중식, 中食」으로 집 밖에서 조리된 식품을 구입하여 포장 또는 배달 등으로 가정에서 먹는 식사의 형태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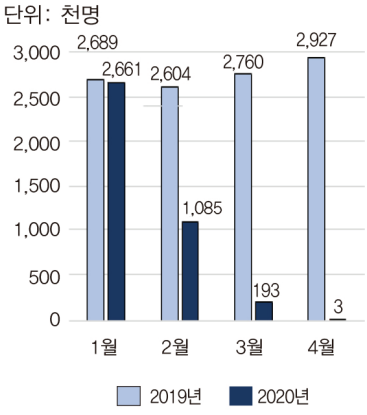
〈그림 9〉 외식산업 매출액과 방일 외국인 수 추이

〈주요 업태별 외식산업 매출액의 전년동월비 추이〉



자료: 일본 푸드서비스협회(http://www.jfnet.or.jp/).

〈방일 외국인 수 추이〉



자료: 일본정부관광국.

3.3.2. 'With 코로나19 시대'의 외식 · 포장배달 산업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시대의 일본에서는 가정식과 온라인 술자리가 정착하고 있다. 모임이나 회식을 위한 외식은 관계자나 가족에게 그 모임이나 회식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야 하므로 외식 빈도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지출 감소,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자의 저가격 선호, 소비세 경감세율(포장배달 8%, 외식 10%)에 의해 포장배달이 증가하고 외식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재택근무의 정착으로 점심·포장배달 업체에 대한 수요의 일정 부분은 상업지역에서 주택지역으로 이동이 전망된다. 한편, 일본방문 관광객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일본의 코로나19 근절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외식 및 포장배달 업체는 경비 절감을 위해 주요 비용인 원재료비·인건비·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외식시장 축소로 종업원의 일부는 타 산업에의 유출도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생활양식에 의한 좌석 배치 및 위생 대응으로 점포 효율이 저하되며, 소비자는 무현금 결제(신용 지불 등)에 익숙해지고 있어 신용카드 계산대 설치도 진전되고 있다[8].

외식업소는 그 업소만의 특색과 독자성이 중요해졌으며, 설비 투자 비용이 적은 새로운 업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업경력이 길어 자본을 축적한 기업이나 고용 인건비가 적은

8) 일본의 경우는 아직도 신용카드보다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음.

단골손님 상대의 개인 사업주(비체인점)는 내구력이 있어 존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용 식자재의 유통에 있어서는 업태 불명 기업(이른바 사기업체)의 증가가 염려된다. 과거 리먼 쇼크나 동일본 대지진 후에도 업태 불명 기업에 의한 피해가 급증한 경험이 있어, 신규 거래나 전시회 상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3.3.3.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외식 · 포장배달 산업

일본은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면서 생활·근무 스타일의 변화와 외식 빈도의 감소로 외식의 이용 동기나 외식의 개념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는 위생·건강·안전·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3밀(밀폐, 밀집, 밀접)을 피하는 개인행동이 기본으로 정착하고 있다. 저~중위가격 업태에서는 1인 식사 대응, 개인 고객을 위한 업태가 늘어날 것이다. 한편, 많은 고객 이용이 전제(대량 판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되는 업태는 퇴출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점포의 효율 저하를 보충하는 포장배달, 케이터링(Catering), 밀키트(Meal Kit) 판매 등의 필요성이 증대하며, 스마트폰 주문·무현금 결제 등과 셀프·자동화기기의 도입도 진전될 것이다.

한편, 빈도가 감소한 외식에는 이벤트성·특별성이 요구되고, 외식의 부가가치(식재료·산지정보·문화·지역특성·엔터테인먼트성 등)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업태는 부활하지만, 접객 규모나 일본 방문 관광객 대응 전략이 아니라 문화·개성을 즐기는 다양한 시대로의 전환이 전망된다.

축소된 일본 외식산업의 회복은 더딘 가운데, 시장 성숙화나 인적 효율 등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의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점포에 대한 투자보다는 디지털화, 자동화, 외식의 부가가치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With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업태가 확대될 것이다. 외식산업의 디지털화 진전과 식재료의 가치정보 요구에 대한 생산·유통 대응 방향으로는 1) 식문화를 뒷받침하는 식재료 생산 확보, 생산정보 제공, 유통비용 절감, 2) 산지정보의 디지털화, 산지·물류·점포까지를 연결하는 유통정보 플랫폼, 3) 물류의 거점 정비·물류 규격 통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3.4. 유통업계

3.4.1.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의 과제와 코로나 19 발생의 영향

일본은 인구 감소로 식품소매업의 매출액은 한계점에 달했으며, 매출을 늘려오던 슈퍼, 편의점은 고객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인력 부족에 의한 인건비 급등은 운영비를 상승시키고 있다. 유통업태별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의 과제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영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과제

업태	코로나 19 발생 이전(~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2월 ~ 5월)
종합슈퍼 (하이퍼마켓)	· 전문 사업자에 대응하여 식품사업의 지역 분사화, 의료품 등 전문점의 분사화 등 업태 해체적인 사업 재편에 착수 · 디지털화 대응은 아직 미흡함.	· 식품, 생활잡화 중심으로 집돌이 수요[9]가 증가했으나, 의류품 등의 판매 감소, 쇼핑센터의 휴업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감소 · 인터넷 판매, 인터넷 슈퍼는 대폭 증가
식품슈퍼 (슈퍼마켓)	· 소비 침체·인구감소의 영향으로 매출은 2018년 11월 이후 전년 대비 감소 · 인구가 증가한 수도권의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 · 종합슈퍼, 지역슈퍼의 통합, 제휴 움직임	· 집돌이 수요에 의한 식품의 대량 구매, 원스톱 쇼핑의 편리성 등에 의해 전년 대비 증가 · 종업원 감염 대책, 낱개 판매 및 시식 중지, 사회적 거리 확보, 셀프계산대 유도 등의 감염 방지책 실시
편의점	· 인력부족과 기존점의 고객수 감소로 2018년 상반기에 점포수 증가가 멈춤 · 24시간 영업시간, 식품손실 등 문제 심화	· 주택지역은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역세권, 관광지, 상업지역은 매출이 감소해 전체로는 매출 감소
드럭 스토어 (drugstore)	· 최근 몇 년, 식품 강화, 조제 강화, 일본방문 관광객 수요에 의해 매출 증가. · 업계 재편이 진전되어 상위 10사의 시장점유율 70%	· 제균제(除菌劑) 등 코로나19 특수로 2월 매출은 전년 대비 +19.1% 대폭 증가, 3월에도 집돌이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액 +7.5% 증가 · 단, 일본방문 관광객 수요가 소멸, 외출 자제 등으로 화장품 수요가 침체
생협	· 생협의 2019년도 점포 공급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지만, 택배는 맞벌이 세대의 이용이 뒷받침되어 0.1% 증가	· 신규가입 신청이 급증해 3월 신선·가공식품·비식품 판매가 증가로 전체 매출은 14.2% 증가. · 일부 상품에 품절·수량 제한 등으로 주문을 처리하지 못하고, 배송 체제도 과부하 상황.
EC (전자상거래)	· B2C[10]의 2018년 EC 시장 규모는 18조 엔으로 EC화율[11]은 6.2%. 단 식품은 2.6%에 머무름.	· 세븐넷 쇼핑의 3월 매출은 외출 자제로 서적, 게임 등이 호조로 전년 대비 30.9% 증가. · EC몰·통신판매로 고령자층의 이용이 가속
도매시장	· 도매물량이 감소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활성화가 과제임. 인력의 확보, 정온 도매장 등 위생의 확보, 팔레트 이용 등 물류·거래 효율화도 과제임.	· 외출 자제 요청에 따라 외식용 고급 식재료(두릅, 와규, 참치 등)와 연회용 화훼 가격 하락 · 집돌이 수요가 견고하여서 가정소비용 식자재 가격은 안정적(배추, 돼지고기 등)
운송업	· 가혹한 노동조건으로 트럭 운전사가 만성적으로 부족 · 트럭 운전자는 손이 많이 가는 농산물의 수송을 기피하는 경향	· 생활필수품인 신선식품의 수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장거리 수송(B2B 등)이 급감하는 한편, 개별배송(B2C)이 현저하게 증가.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 6.

3.4.2. 'With 코로나 시대'에 유통업계의 변화 방향

코로나 발생에 따른 일본의 사회·소비자 의식 변화에 따라 향후 유통업계는 변화가 요구된다. 일본은 사회의식 변화에 따라 식품 손실과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지역 내 순환과 공급망(supply-chain) 단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 의식 변화는 위생에 대한 관심 고조로 비대면, EC(전자상거래) · 택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 감소로 인한 절약의 생활화와 가정 내 조리가 증가하면서 간편조리 밀키트의 구입 증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조리 방법의 활용 증가 등 진행되고 있다.

일본 유통업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 및 소비자의 의식 변화에 대응해 ① 비접촉을 위한 셀프 계산대, 무현금 결제 도입 촉진 등 점포 효율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 등에 대한 필요성 ② 더욱 강화되는 절약·간편화·건강지향 및 환경문제에 대응한 상품 조달·공급력 강화 필요성 ③ EC·택배 이용 증가에 따라 물류업자의 노동 부하가 증대하고 있어 물류기능 효율화라는 종래부터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긴급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산물 유통에서 요구되는 변화의 방향은 물류의 효율화·고도화가 필요하다. 종래부터 일관 팔레티제이션(palletization)[12]의 철저 등과 함께 물류거점 정비 및 활용을 위해 도쿄(오다시장) 집중 리스크의 분산과 지역 내 순환 구축의 관점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산물 공급망 전체에서 물류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물량과 수송 능력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연결을 통한 식품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발생 및 경험에 따라 생산자 지원, 식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구매 행동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3.5. 농산물 수출입

3.5.1. 코로나19 발생이 해상운송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일부 항만에서의 하역 지연으로 식육·유제품 등 냉동·냉장 상태로

---

9) 원자료 표기는 「히키코모리, 巣ごもり需要」로 직역하면 "둥지 속에 틀어박힌 수요"로 코로나 19 발생으로 가능한 한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의미함.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비슷한 의미인 "집돌이 수요"로 번역함.
10) Business to Consumer의 약자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를 의미함. 반대의 의미로 기업 간 거래를 뜻하는 B2B가 있음.
11) 전체 상품거래 중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 비율을 말함.
12) 하물(荷物)생산시점에서 소비지점까지 일관하여 팔레트로 수송하는 것을 의미함.

식품을 운송하는 냉동컨테이너(Reefer Container)의 순환이 정체되어 유럽과 동아시아 간 수송에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유럽 등의 해항(海港) 가동률 저하로 드라이 컨테이너(Dry container)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컨테이너선의 지연·감편과 수송비 상승이 발생하였다. 5월 이후의 외식·식품용 수요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보관 시설의 재고와 수송 상황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5.2. 코로나19 발생이 항공운송에 미친 영향

2020년 3월 중순부터 각 국에서의 공항 폐쇄, 여객편, 화물편의 대폭 감편이 시작되어, 유럽과 남미로부터 대일 수산물 수출에 지장이 발생하였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원양 참치선망선의 입항·선원 교대도 연기되었다. 일본 나리타(成田)국제공항의 수입 신선화물 취급은 4월 5,962톤(전년 동월 대비 60.2% 수준)으로 많이 줄었다.

3.5.3. 코로나19 발생이 해외 산지에 미친 영향

유럽은 2020년 3월 중순~5월 중순에 이동 제한 및 사업소를 폐쇄하였고, 동남아시아는 4~5월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다. 레스토랑 등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하여 유럽에서는 유제품 재고 증가와 시장경기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5월 상순 시점에서, 미국의 식육·식품 공장의 약 200개소에서 감염이 확대되었다. 종업원 간 간격 확보를 위해 가동률은 대폭 저하되었으며, 모든 식육·식품 공장이 재개해도 가동은 생산 능력의 80%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산지의 축산물 시장 상황은 침체했지만 도시 지역의 축산물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고 있다. 또한, 향후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채소, 과일)에의 영향도 예상된다.

3.5.4.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입 실적

일본의 2020년 상반기(1월~6월)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4,120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하였다. 일본은 「식료·농업·농촌 기본 계획 (2020년 3월 31일 각의 결정)」에서 2030년까지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 목표를 5조 엔으로 공표하고 다양한 수출 촉진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2020년 상반기에는 2012년 이후

8년 만에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한편 일본의 2020년 상반기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하였다.

〈표 3〉 농림수산물 수출입 현황

구분		2020년 6월		2020년 상반기(1월~6월) 누계	
		금액(억 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금액(억 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출	농림수산물	757 (687)	▲12.4 (▲2.9)	4,120 (3,728)	▲8.2 (▲2.9)
	농축산물	513 (449)	▲0.0 (3.3)	2,917 (2,550)	1.8 (5.9)
	임산물	34 (34)	▲1.9 (▲1.9)	172 (172)	▲10.8 (▲10.8)
	수산물	210 (204)	▲33.6 (▲14.4)	1,031 (1,006)	▲27.9 (▲18.6)
	※ 참고: 수출총액	48,624	▲26.2	323,645	▲15.4
수입	농림수산물	7,524	▲3.2	44,349	▲6.6
	농축산물	5,512	1.1	32,122	▲2.1
	임산물	797	▲16.8	5,109	▲16.9
	수산물	1,216	▲10.8	7,118	▲16.9
	※ 참고: 수입총액	51,317	▲14.4	346,077	▲11.5

주 1) 추출액 ( ) 안은 주류, 담배를 제외한 금액임.
2) 수출총액은 광공업품도 포함한 모든 품목의 총계를 의미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3.6. 농업 및 식품 생산

3.6.1. 코로나19 발생이 농업·식품 생산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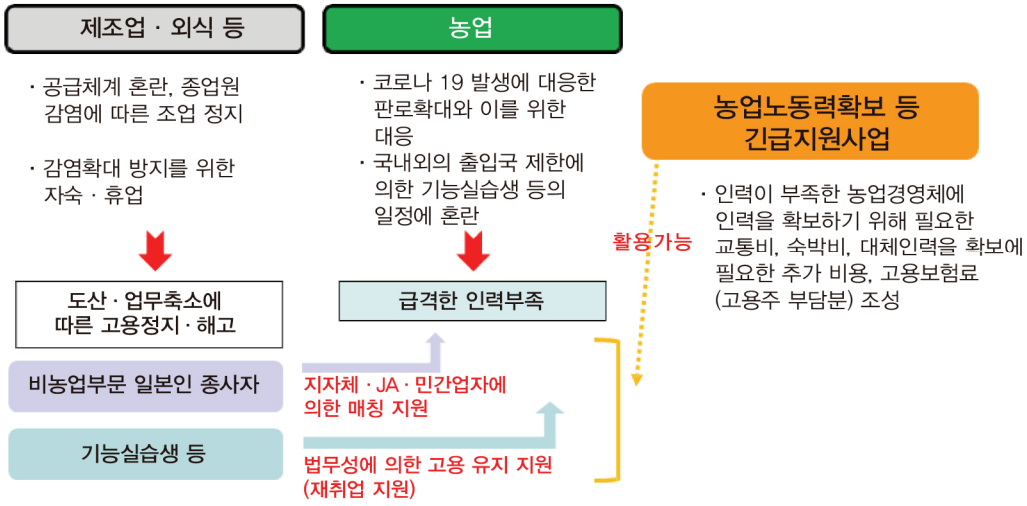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및 지속에 따른 국내·외 출입국 제한 등으로 기능실습생 등 일본 방문이 어려워져 농업부문은 인력 부족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한편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등에서는 도산·업무축소에 따른 고용계약, 해고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업은 작업의 특성상 정해진 시기에 노동 투입이 필요하다. 인력부족으로 파종이나 수확 작업의 지연은 농업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공급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현재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의 경계를 넘어 노동 공급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정지 등으로 비농업분야에서 해고된 기능실습생 등이 일본에서 고용을 지속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특례조치가 2020년 4월 발효되었다. 농업에 고용 시에는 급여를 일본인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지급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다른 산업 종사자를 고용하여 지급 임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추가된 임금의 지급에 「농업노동력 확보 등 긴급지원사업」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10〉 일본의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대응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 6.

3.6.2. 'With 코로나 시대'에 농업노동력 확보 방향

일본에서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장기적으로 농업부문에 위험 요소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인력부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었다. 2020년 3월 31일에 결정된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도 농업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 방침을 명기하고 있으며, 대응 방침의 실행에도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의 수용(국적 변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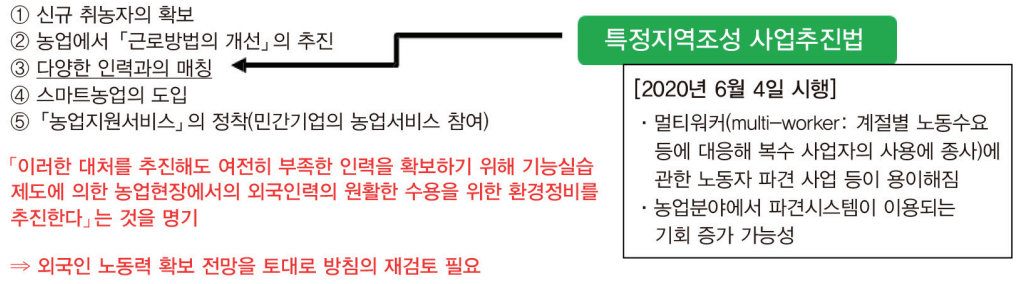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농업부문에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안정된 후, 일본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즉시 확보할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다. 아시아 각국과의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있는 가운데, 일본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노동 절감 기술(생력화 기술)의 도입, 일본인 고용 확보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력이 부족한 원인을 파악하여 현재의 생산, 출하·조정(상품규격·출하방법의 재검토 등), 물류, 판매의 각 단계에서 노동력을 절감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확대나 부업의 추진, 202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지역조성 사업추진법」의 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또한, 일본의 농협(JA)계통에서도 노동력 확보를 위한 직업소개 사업이나 파견 또는 농작업의 위탁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11〉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2020년 3월 각의 결정)」의 노동력 대응에 관한 방침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 6.

4. 일본의 농정 동향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수출부진, 외식수요 감소, 노동력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의 문제도 심화·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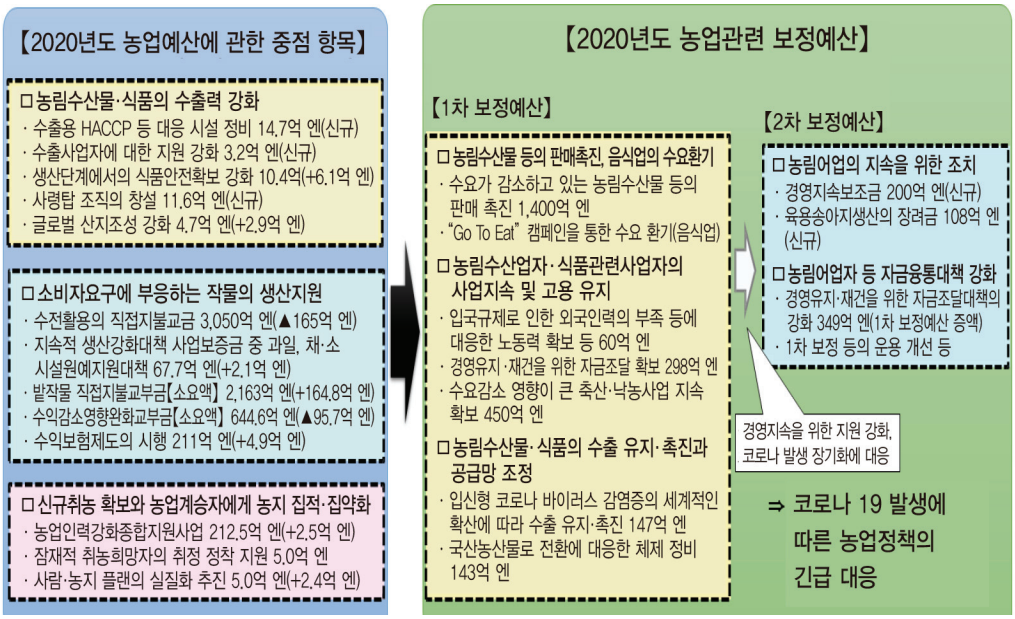
농업부문은 생산과정에서는 인력 부족에 의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 외에도 주요 농축산업 품목별로 낙농업은 3월부터의 학교 임시휴교나 긴급사태 선언 이후 영업용 수요 감소 등으로 우유·유제품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와규 쇠고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고 증가 및 가격 급락으로 육용우 비육 경영체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편 화훼는 졸업식과

입학식, 결혼식 등의 취소로 매출이 대폭 감소하였다.

2020년 일본의 농업부문 예산은 수출력 강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작물의 생산 지원, 신규 취농 확보와 농업계승자에의 농지 집적·집약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일본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농업정책의 긴급대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예산의 보정이 있었다. 2020년 보정예산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수요 감소, 외국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1차 보정)과 농업경영에 대한 지원 강화(2차 보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 우유, 밀가루 등 식량공급 정보를 지속해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경영지속 보조금」을 통해 농축산업이나 식품산업 현장에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식품산업·농업부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림 12〉 일본의 2020년 농업 관련 예산 및 보정예산



자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 6.「코로나 재난에 있어서 식품 관련 산업에의 영향과 농정동향」.

5. 시사점

일본경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식품의 공급과 수요에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수요의 회복 지연이 전망되며,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의 영향에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지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본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은 2008년의 금융위기를 웃돌며 제2차 세계대전에 필적한다는 견해도 있어 경제·고용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각 산업부문은 글로벌하게 분업을 전개하고 있는 공급망(supply-chain)이 긴 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서비스 산업이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저소득층은 코로나19에 크게 피해를 입었으며, 코로나 양성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발생을 경험하면서 위생·건강·안전·환경에 대한 강한 관심이 소비자에게 뿌리 깊게 남아 생활방식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생산과 유통은 물류 시설의 집약·재편, 일관 팔레티제이션(palletization), 냉동·냉장 유통활성화, 공급망(supply-chain)의 단축화, 역내 유통의 강화가 요구된다. 소비자의 위생·건강·안전·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산 농산물의 중요성이 재차 인식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는 가정 내 식사를 지원하는 손질 채소나 유명 요리사가 제작에 참여한 양념 등 부가가치를 높인 밀키트 등에 대한 대응은 지금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일본의 국내시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품질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은 농업·식품생산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아시아 국가와의 임금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을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 방식의 재설계와 「특정지역조성 사업추진법」 등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 6.『코로나재난에 있어서 식품관련산업에의 영향과 농정동향』.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20. 8.『2020~21년도 개정 경제전망』.
일본 농림수산성. 2020. 5.『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축산대책의 개요』.
일본 유통경제연구회. 2020. 5.『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중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일본 총무성.『가계조사보고 - 각 월보』.

참고사이트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s://www.maff.go.jp/)
일본 식품안전·안심재단(http://anan-zaidan.or.jp/).
일본정부관광국(https://www.jnto.go.jp/jpn/).
일본 카쿠노신(格之進) 홈페이지(https://kakunosh.in/).
일본 푸드서비스협회(http://www.jfnet.or.jp/).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s://www.mhlw.go.jp).